



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지만, 한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.

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죄수가 아닌,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꺼라는 거예요.

그렇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,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, 담대함을 주셨어요.

(사도행전 26장 24-29절)